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 내외가 5일 멜리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카르자이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테러범과 협상 없다” 고수

美-아프간 정상회담 대탈레반 강경책…피랍사태 부정적 신호 줄 수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 6일 밤(한국시간) 열릴 예정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비상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아프간은 물론이고 미국 역시 이번에 한국인을 납치한 탈레반 무장조직을 상대로 아프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피랍사태가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동안 한국인 인질들의 무사 석방을 촉구하면서도 ‘테러집단과의 협상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온

양 정부의 입장은 감안하면 이번 회담에서도 인질 석방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한국인 인질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탈레반 측이 요구하는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와의 맞교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미국 측도 한국인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테러범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

서도 두 나라는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탈레반 세력의 재부상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카르자이 대통령에게 탈레반에 대해 대(對) 탈레반 군사 맹 확충 등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주문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이 같은 예상대로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주로 탈레반을 압박하는 내용들로 채워진다면 탈레반도 이에 반발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짐짓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질 살해” 위협 동시에 “새로운 협상”

탈레반 ‘대면협상’ 앞두고 강온 전략 구사

탈레반이 한국과 대면협상을 앞두고 인질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강경 반언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행함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끌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5일 밤(현지시간) 연합뉴스와 간접통화에서 “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지날 수록 인질의 목숨도 초단위로 짧아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우리의 안내심은 한계에 달했고 인질 1~2명은 더 죽일 수도 있음을 한국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유엔에 안전보장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디는 또 “우리의 지도자가 새 선택을 갖고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수감자 고환안이 아닌 다른 협상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나 탈레반은 협상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마디는 “우리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며 “아프간 정부의 영역 안에서 협상을 하려면 유엔의 안전보장을 필요하고

우리의 영역에서 하려면 의회에 진출한 탈레반 출신 의원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아마디는 또 “우리의 지도자가 새 선택을 갖고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수감자 고환안이 아닌 다른 협상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새 결정은 한 지도자가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물라 오마르인에게 대한 질문에 “오마르는 최고위 지도자로 대미 항전 등 큰 일을 처리한다”며 “탈레반에 한국인질문제는 이주지역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증개사

① 모집과정

▶ 공인증사 12개월~6회 시험일: 10월 28일
▶ 주택관리사 12개월~6회 시험일: 10월 21일
▶ 주택관리사 2차회기�평가 주말반토익 시험일: 10월 21일

② 모집대상

▶ 훈련도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전 실무경험 분
▶ 성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아인 분 4세 이상이신 분
▶ 근로자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단기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③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자임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수료후 100~80% 환급

④ 접수

▶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컴퓨터 과정 -

⑤ 모집과정

▶ 정보기초과정 원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활용
▶ 정보기초과정 워크샵 앤솔,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⑥ 모집대상

▶ 고용보험가입자임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⑦ 기타사항

▶ 수료후 100% 환급

⑧ 접수

▶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⑨ 수업시간

▶ 월수금 19:00~21:00(기초) ▶ 화목 19:00~21:00(기초)

⑩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224-4560, 232-1088

= 特報: 세무公務員 3000명 모집, 합격의 첫걸음!! =

7·9 금 공무원 특강

9세무직 2700명 공채 1차: 9월 6일 시행(1200명 모집)(사상초유)
금세무직 2700명 채 2차: 내년초(1500명 모집 예상) (大모집)

■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사험
■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을하반기 사험
개강 8월 16일 주야반 모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학습 최多란 말을 듣고 있다.=

무등고시회원 www.mdgosi.co.kr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9 금 공무원

개설학과: 행정학, 교육행정, 세무학, 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군사학, 교육학, 동양학, 전산학, 보건학, 한국학, 기술학

7·9급 공무원 이론만 첫진도 3000명
합격률 3000명 평균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9월 1일
전남대 후문 복구정 건너편 ☎ 234-0234

[종합·국제]

■ 피랍사태 ‘속수무책’… 국민들 집단 무력감

“결국 다 죽는 것 아니냐”

개신교·무슬림·미국에 감정 폭발할 수도

6일 전문가들은 아프간 사태가 탈레반에 의해 남성 인질 2명이 피살된 데 이어 일부 여성 인질의 건강 악화 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들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입을 모고 있다.

심성민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미국은 원칙론만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프간 관련 각 포털 뉴스게시판에는 “결국 다 죽는 것 아니냐”, “답답하다”는 글이 이어졌다.

국민들의 이 같은 집단 무력감은 다른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피랍관련 뉴스 및 글에 탈레반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개신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시종일관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치와 무관하게 일반 대중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책임자 또는 비난의 대상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분풀이’는 격렬한 감정폭발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집단 무력감은 다른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II 현장과 시각 II

외국인 근로자 어찌하오리까



이종태

경제부 차장

광주 남한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로 골머리를앓고 있다. 고용하자니 내국인 근로자와 맞먹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외면하자니 일손이 달려 공장 정상화등이 불가능할 것 같아 아래자래 고민스럽다.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1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는 임금체불, 불법체류자 양

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올 1월 정부가 고용계약을 주도하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다.

이로 인해 산업연수생제의 병폐는 어느 정도 줄었다고는 하나, 불법은 중소업체들에게 뛰었다. 고용허가제 퇴직금·상여금·연월차수당 등에 최저임금 보장까지 강제규정하는 바람에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편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남산단 A업체 대표는 “산업연수생제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1인당 37만원 가량 증가했고, 퇴직금 지급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1인당 매달 130만원을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여기에서 속식까지 고려하면 내국인 대우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업체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천480원으로, 월 75만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시급을 올해보다 8.3%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중소업체들은 “고용허가제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분개하고 있다.

타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월 1천달러에 달하는 대만·대·부·바이 등은 200~500달러에 그치고 있다. 소촌공단내 B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이 줄 수밖에 없고, 이란처럼 송출비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내외국인의 최저임금제를 별도방안으로 규정, 외국인 최저임금을 중소업체의 경영방식에 맞춰 정하도록 인상폭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내외국인 임금차별은 인권침해’라는 시민단체의 비난과 ‘국제협약에 따라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에 밀려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업체들에게 최저임금 해결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공청회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외국인간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등한 임금지급이야말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jtlee@kwangju.co.kr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뎀갤러리 신제품출시

찾아오는 길

Gallery RODEM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뎀갤러리 신제품출시

찾아오는 길

기동생원

백운동

남양주

삼성디자인
프리미엄
현대자동차
미래아울렛

Gallery RODEM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뎀갤러리 신제품출시

특별기획상품행사

진열상품 30%~최고50% (일부품목제외)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